

수원 물부족 제한급수

다음달 21일돼야 정상공급 가능

“식수난 해결위해 다음학기 상수도 도입”

수원캠퍼스는 지하수량 감소로 인한 물부족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한다.

영통지구 개발로 많은 상가와 주택이 증가하여 수맥이 줄

어늘고 5개의 호정에서 토출되는 지하수량이 1일 필요량인 7백95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백10톤(작년대비 2백10톤 감소)으로 감소해 다음달 20일까지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표 참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과는 자연대-열 6호정 개발을 완료하여 오늘부터 1일 1백톤의

지하수를 공급하는 한편 수도꼭지 잠그기(퇴근시, 단수이후), 비상물통 준비(실험실, 사무실) 등을 통해 절수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관리과는 “상수도 공사가 빠르면 6월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늦어도 2학기부터는 수도를 공급으로 식수난은 영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원 기자)

건물명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외국어대관			*	*	*					*	*			
사회과학대관		*	*	*		*	*			*	*			
공과대학관		*	*	*	*	*	*	*		*	*			
자연과학대관		*	*	*	*	*	*	*		*	*			
산업대학관		*	*	*			*	*		*	*			
체육과학대관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학생회관	*	*	*	*	*	*	*	*	*	*	*	*	*	*
국제관	*	*	*	*	*	*	*	*	*	*	*	*	*	*
예치원	*	*	*	*	*	*	*	*	*	*	*	*	*	*
천문대	*	*	*	*	*	*	*	*	*	*	*	*	*	*

각건물별 물공급 시간

내년 양캠퍼스 신입생 선발 차별화

전형일, 논술시험 여부 달라

입학관리처는 지난 21일 ‘1998학년도 신입생 선발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입생 모집에 있어 최정환 5대 기초의 내용은 ‘1997학년도 입시전형제도의 특성 유지, 서울·수원 캠퍼스 선발의 차별화, 학부별 선발의 특성화, 학생부 평가방법의 단순화, 국제화를 지향한 인재 선발’ 등이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서울·수원 캠퍼스 선발의 차별화’를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서울·수원 캠퍼스의 전형일이 달라질 예정이며 수원캠퍼스는 논술시험을 치루지 않는다.

이는 중북학과의 수원캠퍼스 미달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정된 사안으로 중북지원에서 오는 과중한 학교 업무량

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별 선발의 특성화를 위해 일부학과는 한해 TOEIC, TOEFL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업무난을 해소해 하고자 내건 ‘학생부 평가방법의 단순화’도 예년과 다르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98학년도 입시요강을 작년 입시요강과 비교해보면 먼저 ‘TOEIC, TOEFL, ‘교장추천’, ‘자기소개’ 등의 새로운 전형제도가 개발, 도입되었으며 서울캠퍼스 정시모집 일정이 복수화되면서 일부학과와 ‘교차지원’이 사실상 허용되어 의예과나 법학과 경우 ‘가’군과 ‘다’군 모집에 중복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제능계열 모집방법에 있어 1차 실기시험에서 2,3배의 인원을 선발한 후 수능성적으로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는 현행하는 예제능계열 입시부정 방지책을 합당하지 않은 행태로 본 데에서 기인한다.

그 외에 사회봉사자 및 국민자에게도 대학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번 입시제도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게도 그 문을 열어 놓을 예정이다.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식당공사 후 학생들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켰던 교직원 식당이 식당측과 학생회측, 학교측의 잠정적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개방된다.

식당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지적을 받았던 교직원 식당은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개방, 학생들에게 교직원식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을 빚었던 퇴직구 위치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스넥코너 설치후 학생식당 관계자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

오인환(회계 4)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장은 “스넥코너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구 이동이 있을 경우 스넥코너 이용자와 매점이용자, 퇴직구 이용자 사이의 혼란이 빚어진다”며 “스넥코너 설치 후의 상황을 감안하여 퇴직구 이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식당이 80석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식당의 신설로 인해 오히려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식당업주는 “사실과 다르게 시각적인 면에서 공간이 축소되어 보인다”며 “공사지연으로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식당 공간 문제는 대단위 교직원식당과 학생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우정원 공사 완공과 함께 다음학기중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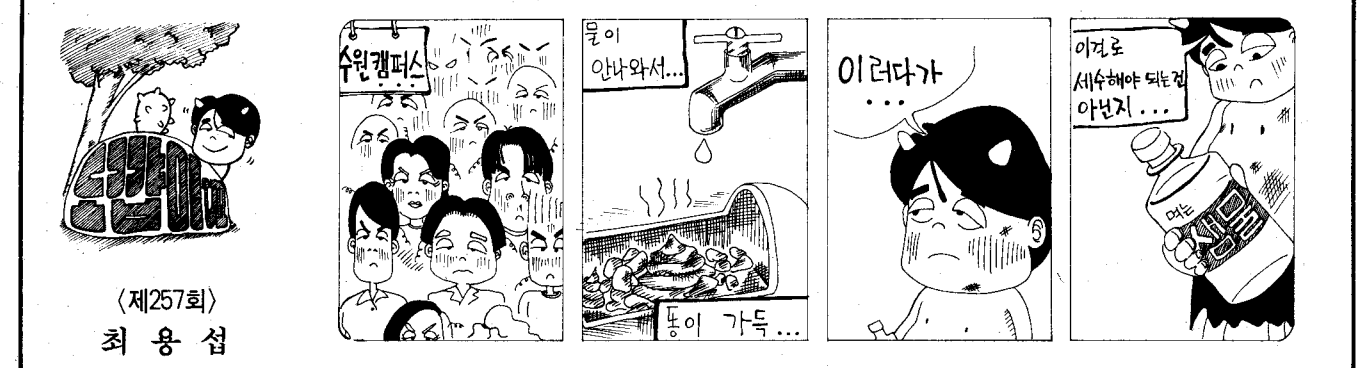
김종욱 실형 2년 선고

김희영 공판 내일

연대사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서울동부지부연합(동총련)의장 김종욱(사학 4)군은 지난 18일 서초고등법원에서 열린 3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작년 12월 20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선고 받은 실형기간 3년보다 1년이 줄어든 것으로 이번 공판이 최종심인만큼 김종욱 전 학생회장의 배경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희영(신방 4) 전 부총학생회장의 3차 공판은 오는



(제257회) 최용섭

97 새내기 교양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97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교양학교’를 개최했다.

18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임종석 상년정보문화센터 소장과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 교육국장을 초청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내기들에게, “노동자-기름밥 청춘의 노래”라는 주제의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Fantastics 봄 정기공연

의대 메탈그룹 ‘Fantastics-봄 정기공연’이 오는 25일 오후 6시 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약 4개월간 20여명의 구성원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는 Another day, Come out and play, 마트생활 등 20여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올 가을에 또 한차례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고전기타반 공연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복지회관 지하 공연장에서는 고전기타반의 신입생 환영 공연이 선보여진다.

솔로를 포함, 총 5개 팀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은 ‘El Ultimo Tremolo’, ‘모짜르트 심포니 No.40 in G minor’ 등이다.

또한 이들은 가을에 30명의 합주를 포함한 대형연주회를 준비중에 있다.

학군단 모집

수원캠퍼스 학군단에서는 98년도 학사장교와 군장학생을 모집한다.

학사장교는 4월 18일까지 접수하며 5월 1일부터 3일까지 체력검정 및 면접, 5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군장학생의 경우 접수는 4월 19일까지이며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면접,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신체검사를 한다.

합격자발표는 학군단은 11월 20일, 군장학생은 8월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자유연구과제 선정자 확정

총 52명, 2억2천3백50만원 지급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97 자유연구과제 선정자’를 발표했다.

지난 4일 학술연구운영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교무위원회의 11일 심의로 결정된 이번 선정의 대상자는 12개 계열 52명으로 2억2천3백50만원을 지급받는다.

선정자 선정기준은 신청교수의 연구계획서 심사 및 95,96학년도 연구실적이 중심이 되었으며 계열별 인원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아동학과 조복희 교수 외 4명, 1천7백50만원 △법학계열=법학과 윤명선 교수 외 4명, 1천7백50만원 △사

회계계열=회계학과 정혜영 교수 외 5명, 2천1백만원 △이학계열=물리학과 김영동 교수 외 8명, 4천3백50만원 △약학계열=약학과 서성훈 교수 외 4명, 2천5백만원 △의학계열=의학학과 권무일 교수 외 7명, 4천만원 △간호계열=간호학과 김귀분 교수 외 4명, 2천만원 △한의학계열=한의학과 김창환 교수 외 4명, 2천2백만원 △치의학계열=치의학과 김정희 교수, 5백만원 △음악계열=작곡과 육길성 교수, 3백50만원 △체육계열=체육학과 유승희 교수, 5백만원 △기타=언어교육원 김규현 교수, 3백50만원.

세계로 미래로

제조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
동양토발

식품

동양제과
오래온프리트레이

공익

서남재단
동양오리온스

금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동양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알부금융
동양장금투자
에셋코리아투자자문
동양신협
동양파이낸스

무역·건설·유통

동양글로벌
동양시멘트/건설
동양에운
동양마트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정보통신
동양Systemhouse
오리온카운터네트웍

동양그룹